

市道·지역회 소식

전남 경우회



최근 곡성군 태안사에서 오남택 회장,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한강택 전남경찰청장, 경찰작전 참전 동지회원과 유가족, 내빈 등 약 5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55주기 태안사 작전 전몰경찰관 위령제를 갖고 고인들의 넋을 추모했다.

이곳에는 지난 50년 8월 6일 미명의 괴뢰군 정예주력부대의 기습 공격으로 상호 치열한 격전 끝에 태안사 계곡에서 장렬히 산화한 48명의 전몰경찰관들이 묻혀 있다. 한편 한강택 전남경찰청장은 당시 경찰 작전에 참여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참전동지회 이광종 회장의 27명의 경우들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충북제천 경우회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김규형 회장, 서재만 국회의원의, 조용태 제천경찰서장, 엄태영 제천시장 등 전현직 경우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단합대회를 갖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한편 전현직 유대강화, 경우회 발전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한편 제천 경우회는 매월 15일에는 정기 이사회를 갖고 당면 현안을 협의하는 등 앞서가는 지역회로 발돋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보령 경우회



최근 김동운 회장을 비롯한 회원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명문당 4거리 등 5곳에서 운전자와 시민을 상대로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거리질서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대전서부 경우회

최근 조만희 회장을 비롯한 임원 등은 을지훈련에 여념

이 없는 현직 후배 경찰관들을 방문하고 포도 5상자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경기안성 경우회



최근 관내 웨딩홀에서 정종운 회장을 비롯한 회원, 내빈, 초청인사 등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위원회 총회를 갖고 경우회 발전과 전현직 유대강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정수인 자문위원장은 이날 사용 경비 일체를 부담해 참석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경기분당 경우회



최근 분당경찰서 서장실에서 장근진 회장, 박광순 서장, 이 곳 분당 서장을 역임한 오세찬 성남 시설관리 공단 이사장, 내빈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광순 서장에게 명예회장 추대패를 전달하는 한편 전현직 간담회를 갖고 조직발전을 결의했다.

전남진도 참전경찰회



최근 부영식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 및 6.25 참전유공자 회원 등 1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2박 3일 일장으

로 강원고성 통일전망대와 휴전선 일대, 임실 호국원, 향토문화회관 등을 둘러보는 안보시찰을 갖고 애국 정신 함양에 힘썼다.

서울중앙 경우회



최근 서울 은평구 진관사 입구에서 이승범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자문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일대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을 수거하는 자연보호캠페인을 펼쳤다.

한편 참석 회원들은 캠페인 이후 회원 단합대회를 갖고 지역회 발전과 회원 친목도모를 결의했다.

대구서부 경우회



최근 김범용 회장을 비롯한 김찬승 대구 경우회장, 윤진 서구청장, 김명석 자문위원장, 내빈, 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구 중리동 69-8번지에서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지역회 발전을 결의했다. 이날 김범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곳 지역회 사무실을 회원들의 사랑방과 청소년 선도 상담, 지역방법, 자연보호, 치안협력 등의 장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우회 기우회

최근 인천경우회 사무실에서 임환빈 회장을 비롯한 회원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손영태 전 회장 이임 기념 친선 바둑대회를 갖고 월례회의를 가졌다.

충의회 대전서부지회



최근 홍성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둔산 수락계곡에 소재한 경찰 충훈탑을 참배한후 월례회의를 갖고 당면 현안을 협의했다.

미국 한국전 기념비 10주년 참관기

민간 외교관으로서 자부심과 긍지 만끽

송구호(참전경찰유공자회 상임부회장)

나는 국가보훈처 주선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6.25 한국전 55주년 및 미군 참전기념비 건립 10주년 행사에 6.25 한국전 당시 맹장이신 유시종 해병소장 원로장군을 모시고, 육, 해, 공군 각 단체 참가단 30여명의 대열에 우리 참전경찰유공자회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은 Washington D.C. National Mall 지역 링컨 기념관 우 전방에 위치한 약 8,400평의 공원으로 약 2,400평에 달하는 기념 조형물 화강암 석벽 조성 19명의 참전용사 동상 설치, 추념의 연못, 추념의 숲 한국전 참전 22개국 명단까지 기록 되어 있다. 이 곳은 기념 주화 발행 및 세금 등으로 조달된 1,700만\$의 비용으로 1992년 6월 24일에서 1995년 6월 30일까지의 공사기간을 거쳐 건립된 이래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미국의 「한국전참전용사회」(KWVA)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일(6박 7일)까지 한국전 참전 55주년 및 한국전 참전 기념 공원 건립 1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뉴욕지역 포함) 참전 22개국 전우들을 초청 기념행사를 가졌는데, 전쟁 당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워싱턴의 국민 광장에 조성하여 한국전을 수호한 전쟁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 하게 이른 것이다.

미국 재향군인회 측은 한국전 기념비 제막에 즈음해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인근의 국기 광장에서 참전 기념비 제막 경축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의 표어는 「한국전쟁, 잊혀져서는 안될 전쟁」으로 전쟁 당시 아전막사를 본 뜬 10여 개의 대형 텐트촌을 만들어 당시의 분위기를 되살리고 있다.

소위 Tent City로 불리는 행사에서는 미국 재향군인회가 마련한 한국전 관련 자료들이 전시되고 있으며, 미국 청소년들의 한국 태권도 시범, 전통 한복패션쇼와 사물놀이, 꽃꽂이 전시회와 군악대 군 의장대의 시범 등을 개최하는 한편 참전용사 미술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한편 7월 28일에는 워싱턴 일대를 둘러 보았고.

7월 29일에는 4천명의 4년제 재학생중 한국학생 100여명이 재학중인 미국 해군 사관학교를 견학하고, 사관생도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했다.

7월 31일에는 미 육군사관학교 견학하는 한편 1931년에 건설된 세계 제 4위인



참석자들이 한국전 기념비 앞에서 묵념하고 있다.

사국인 우리 한국 참전용사들이 참가하여 미국 참전 용사들의 자유수호 정신을 기리는 한편 한국전 참전에 감사하며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한·미 양국의 우호 증진에 보람을 더욱 느끼게 되었다.

지난 7월 27일 11시 미국측에서 보훈부 장관과 Washington D.C 시장 및 기념비 회장 Louist Dechert 대령(예)의 축사에 이어 우리측 홍석현 駐美 대사가 경축사를 했고, 수많은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에게 태극선 부채를 기념으로 나눠주며 서로의 우정 표시를 나누게 되어 보람있는 행사를 마쳤다.

한국전 참전 기념비는 미국사회에서 잊어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되살려 주는 상징물이다.

37개월 간 계속된 한국전에서 미군은 5만 4천 여명이 전사하였기에 한국전쟁은 미국인들간에 「기억하기 싫은 전쟁」으로 각인돼 이를 기념하는 조형물조차 제대로 건립되지 않았으나 정전 협정 체결이후 42년 만에 미국 재향군인회를 중심으로 정전 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에

높이 381m로서 102층으로 마천루의 대명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 정치의 본부인 UN 본부, 세계 금융의 핵심이 되는 Wall Street, 흑인 밀집 지역인 할렘 街를 견학했다.

또한 8월 1일 우리 원로 일행은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인, Saint John The Divine(1785년 창립)의 웅장한 역사적 성당 내부를 관람하고, 성당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서깊은 콜럼비아 대학 관공학부에 당일 입학과 동시에 교정에서 명예로운 졸업사진을 마감으로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만끽하는 가운데 6박 7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나는 공식 일정이 종료된 가운데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전우일행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친지 가족들을 따로 만나기 위해 일행과 헤어졌고, 지난 8월 8일 15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게 되어, 이번 미국 한국전 기념비 10주년 참관을 생애의 보람으로 여기며 여러 선후배 동지들에게 감사 드리는 바이다.

警友會 “會章”(마크) 圖案 현상 모집 공고

경우회를 상징하는 現在の “會章”은 1981. 11. 21 경주의 날을 계기로 제정되었으나 경찰대학 휘장과 매우 흡사하고 조직의 상징성도 결여되었다는 여론이 있어 경우회의 정체성과 활력있는 조직을 나타내고 화합과 발전을 상징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안을 공모코자 합니다.

□ 공모대상 : 경우회원(전·의경 전역자 포함) 및 명예 경우회원(현직 경찰관 및 전·의경 포함)

□ 공모기일 : 2005. 7. 25(월) ~ 2005. 9. 26(월) 2개월간

□ 공모방법
○ 경우회 홈페이지 및 경우신문 이용 공모, 전국 시도회 및 지역회 등에 공지
○ 경찰청·지방청·전국경찰서 홈페이지 활용 공모

□ 공모도안에 담을 내용
○ 국가와 경찰을 사랑하는 경우회 조직의 정체성 상징
※ 안보단체로서의 상징성 등
○ 치안협력단체의 성격
※ 방범, 질서유지, 환경운동 등 봉사활동단체의 성격
○ 회원간 화합과 단결, 전·현직간의 유대감 조성
○ 활력 넘치는 경우회 조직발전의 기상
○ 현대감 세련미 등

□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에 의해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상 금
○ 당선작 1점 : 금 100만원
※ 당선작이 없을 수도 있음

○ 가 작 3점 : 금 10만원 상당 상품권 또는 기념품
※ 가작은 작품내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3점의 추가할수 있음

□ 당선작 발표 : 2005. 10. 31(월) 경우회 홈페이지, 경우신문

□ 당선작 시상 : 2005. 11. 21(월) (경주의날 행사時)

□ 응모요령
○ 응모양식에 의거 응모(별첨양식 : 홈페이지에서 down가능)
○ 모형과 색에 대한 도안설명서 첨부 (A4용지 1장 이내 보충가능)

□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마감 : 마감 당일 접수분(18:00까지)에 한함
○ 접수방법 : 우편접수에 한함
○ 문 의 처 : 경우회 총무부
◇ 대표전화 : (02) 2234-1881/ 2231-2143 ~6
◇ 경비전화 : 8-3345
○ 접 수 처 : (우) 100-821
◇ 서울시 중구 신당동 171번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총무부
※ 겹봉에 『응모서류』라고 표시 요망

대한민국재향경우회

「경우신문」 원고 모집

◎ 時論, 提言

- 우리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사고 중 그때그때 사회문제화된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여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내용

◎ 독자의 소리

- 일상생활을 통하여 보고, 느낀 일 중에서 이것만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일

◎ “이래도 됩니까”

- 전·현직 누구나 ‘체험한 ‘일’ 중에서 사회 고발성’ 또는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특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

◎ 취미나 건강

- 노후인생을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는 독특한 건강법이나 취미생활

◎ 行事, 動靜, 結婚, 訃告 等

- 支部, 支會 행사 또는 동기생 모임이나 경찰재직중 갖게된 각종 모임 소식
- 회원의 출신계급과 관내·외 거주를 불문하고 소식과 動靜을 사진과 함께 송부
- 결혼, 부음 등은 일시 장소와 회원과의 관계를 명시
- 경우회의 발전방향이나 경찰과 관련이 있는 내용

※ 200자 '원고지' '6매(A4용지 2매)' 内外로 작성하여 경우신문 담당자 앞으로 송고